

내신 5등급 시대, 지역·유형별 전략 갈린다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입은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의 본격적인 결합으로 기존 대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확실적인 줄 세우기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자기 주도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우리 교육의 깊은 철학적 변화를 반영한다. 특히 서울·경기 지역 내 학군지와 외 지역, 고교 유형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엇갈리며, 현명하고 선제적인 극복 전략 수립이 절실하다.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내신 5등급제 도입이 가져올 ‘변별력 상실’이라는 충격이다.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확대되며 내신의 미세한 변별력은 사실상 없어진다. 이는 상위권 대학 경쟁에서 동점자 대거 발생이라는 새로운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대학들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생부의 정성적 요소를 극대화하며 새로운 변별력을 확보한다.

그동안 수는 중심으로 설명되던 정시는 크게 변모한다. 서울대는 정시 일반전형에

수시 학종 수준의 ‘교과 역량 평가’를 도입했고, 건국대는 정시에서 수능 80%에 학생부 정성평가 20%를 반영한다. 이는 과거의 ‘수능 올인’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고교 3년간의 충실한 학생부 관리가 이제 정시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로 격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는 경희대의 교과전형에 ‘교과종합평가’처럼 교과 성취도뿐 아니라 탐구 활동과 진로 일관성이 핵심 변별 요인이 된다. 결국 ‘수능과 학생부의 분리’는 사라졌고, 두 요소는 학생의 진정성 있는 학업 태도와 탐구 역량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통합되고 있다.

이 변화는 고교 유형별 유불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첫째, 특목고·자사고는 내신 5등급제로 인해 정량적 우위가 약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게 된다. 내신 1등급 비율이 상위 10%로 확대되면서, 명문고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기존 2~3등급이 암묵적으로 드러내던 학업적 탁월함이 등급 숫자만으로는 충분히 변별되지 못하고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화 선택과목 이수, 탐구 중심 수업 경험 등 정성평가에서 드러나는 학업 역량은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수능 고득점과 더불어 소논문, 심화탐구보고서 등 고급 과목 기반

의 진로 특화형 학생부를 구축하며 자신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둘째, 학군지 일반고는 5등급제 수혜로 겉으로 보기에 내신 1~2등급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내신 등급 내 동점자가 급증하는 새로운 압박에 직면한다. 학군지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치열한 내신 경쟁에 몰입하다 수능 대비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경우 오히려 ‘전략적 안전판’을 잃을 위험이 증가한다.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의 수능 최저 폐지 등 일부 대학의 완화된 기준은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다. 대다수 주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 충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동점자 속출에 대비해 교과서 밖의 독서, 자율, 동아리, 진로활동을 통한 특정 분야 심화 탐구 등으로 고품질 세특 관리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진정한 변별력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비학군지 일반고는 5등급제로 상위 등급 확보가 용이하고, 서울대 지역균형 확대 등 정책적 기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교육 환경의 질적 격차로 인한 정성평가 불리함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BS 진로전략연구소장

‘딸깍’ 소리에 발작 버튼 눌리네



기자 수집

김 현 정
(IT부)

신조어를 좋아한다. 우리 사회의 우스꽝스러운 세대를 촌철살인의 풍자로 풀어낸 표현들이 주는 묘한 쾌감이 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발작 버튼 눌렀다’라는 표현처럼 말이다. 이 유행어(?)는 누군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유발할 만한 트리거를 건드렸을 때 사용되곤 했다. 버튼을 누르면 나는 의성어 ‘딸깍’이 자주 함께 쓰였다.

최근 AI(인공지능)의 부상과 함께 ‘딸깍’의 쓰임새도 달라졌다. 이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로 무언가를 대충 쉽게 해내는 모습을 빗대는 말로 쓰인다. 필자

는 ‘AI 전문기업’이라는 수식어를 내세운 취재처가 답변을 늦게 줄 때면 “명색이 AI 전문기업이라면서 ‘딸깍’도 못 하나?”라고 혼잣말을 궁시렁거리곤 했다.

회사 LLM(거대언어모델)에 질의서를 넣고 답변 초안을 받아, 팩트 체크하고 표현만 좀 다듬으면 10~15분에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가 안 갔다.

얼마 전, 이 ‘딸깍’ 소리에 발작 버튼이 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발자인 지인에게 “AI 때문에 개발자들 다 잘린다는데 정말 큰 일이다”라고 ‘걱정’해줬더니 그쪽에서 “기차도 곧 아냐? 기사는 ‘딸깍’하면 하루에 100개, 1000개도 금방이잖아”라고 맞받아쳤다.

취재원의 답변을 기다리며 투덜거렸던 과거가 떠올랐다. 혹 그간 내가 다른 사람의 노고를 ‘딸깍’이라는 두 글자로 평가절하해왔던 건 아닐까. 나는 그리고 어쩌면

당신 혹은 우리는, 그간 ‘딸깍’이라는 말로 비아냥대며 타인의 수고와 노력을 얼마나 많이 후려쳐왔던가. 며칠 전 기사를 준비하며 흥겨운 미술 평론가에게 “전문가들의 전망과 달리,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예술 창작 분야가 가장 빠르게 AI에 잠식된 이유가 무엇이나?”고 물은 적이 있다. 그의 답변이 이 ‘내로남불 딸깍 사태’를 풀어줄 실마리가 될 것 같아 덧붙인다.

“일단 아직까진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몇몇 주요 미술관에서 AI와의 창작에 호의적인 것은 맞고, 언론은 그것을 침소봉대하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작가들은 AI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작업한다. 도구로서의 AI와도 거리를 두는 작가들이 많다. 사회적 현상에서만 보면 갈수록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제가 아는 한 절대다수다.”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27일 (음 10월 8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친구가 찾아와서 근심을 던져 준다. 48년생 습관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60년생 주변이 인정해 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72년생 변화가 있어도 영향은 미미하다. 84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큰 이익을 놓친다.	
 소	37년생 착한 옛친구를 만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49년생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이 변하지 마라. 61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좀 더 노력하라. 73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85년생 침묵해야 모두가 편하게 간다.	
 토끼	38년생 내가 먼저 행동해야 상대도 따라온다. 50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62년생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적다. 74년생 손풍에 뒤편배가듯이 순조로운 하루. 86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를 높이고 실속도 챙긴다.	
 토끼	39년생 혼자는 외롭지만 둘은 괴롭다. 51년생 여기저기 계속되는 지출에 삶이 지겨워진다. 63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이 될 것이다. 75년생 늦었다고 포기 말라. 87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따라서 상쾌.	
 양	40년생 의견충돌이 염려되니 고집을 조심. 52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64년생 말은 쉬우나 주위 담을 수 없으니 조심. 76년생 혼자서라도 웃으면서 지내라. 88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	
 바람	41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걸어 간다. 53년생 힘든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65년생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77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이득이 많은 날. 89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말	42년생 어제의 친구가 적으로 오니 배신감을 느낀다. 54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 66년생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좋다. 78년생 조인이 간섭될 수 있으니 내 할 일에 충실해지라. 90년생 술자리는 하지 않는 것이.	
 고양이	43년생 산행에서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까 걱정된다. 55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67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보람이 있다. 79년생 욕심을 부리면 손재에 발목을 잡힌다. 91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 충전이 필요.	
 원숭이	44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56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한다. 68년생 불평은 운을 깎는다. 80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지체. 92년생 자신의 머리로 믿고 있다는 일을 그르친다.	
 닭	45년생 고칠 수 없는 것은 미련 없이 버려라. 57년생 재는 많은 자식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 69년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답을 찾자. 81년생 만남에서 민망한 일을 겪을 운세. 93년생 평온한 바다에 한가로이 떠다니는 하루.	
 개	46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58년생 행복은 재물에서 비롯되니. 70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82년생 적선공덕의 끝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94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돼지	47년생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59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라. 71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품어라. 83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95년생 부자는 우선 자체력과 신용에서 시작.	

김상회의四季

인성도 교육되어야



전통적으로 교육은 온전한 인성과 인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본래 교육은 인간 형성의 주된 수단이지 출세의 수단이 아니었다. 유교적 관념으로는 군자(君子)의 성품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 태어나 이뤄야 하는 전인적인 목적지였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육은 개인의 출세, 입신양명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 출세는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고 돈을 버는가가 기준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결국 ‘돈’으로 치환되는 것이다. 야비하고 더러운 술수를 써서라도 목적을 이루라는 것은 마키아벨리즘이다. 이는 바르고 참된 순연의 정치로서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아름다운 정치의 요순시대를 꿈꾸던 공자가 보자면 귀를 찢을 얘기다.

사회가 단순하고 단일화되어 있던 시대에는 과거를 통한 것이 입신양명의 첩경이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명문대 학벌과 학위가 한동안 우위를 차지했었다. 그러다 슬슬 3차 산업 시대가 끝나가면서 컴퓨터공학이 등장하더니 부지불식 간에 인공지능사회로 들어섰다. 개성이 존중되는 것도 인본주의 시대애나 가능하다는 생각이어서 이제 개인은 없고 AI에 의해 조정과 관리를 받는 인간 부품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보면 과장일까? 그러나 인간은 인간이고 AI는 AI다.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 인공지능은 마이크로 칩이다. 그것에게는 따뜻한 피가 흐르지도 않고 촉감을 나누는 감정의 공유가 실제가 될 수 없다. 얼마 전 나온 영화 중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AI인형이 왜곡된 감정으로 자기감정에 방해되는 사람을 살상하고 교묘하게 조종하는 AI세상의 부작용과 부조리를 다룬 공포영화도 보자니 몹시 두려운 세상이 멀지 않은 듯하다. 도덕이 사라지면 파멸적인 감정만 남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학술원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 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 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알도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2	7	9	2	1	6	8
9	7	1	8	6	9	8	2	2
6	2	8	2	1	8	7	9	9
7	9	9	1	2	8	6	2	8
2	6	8	9	9	7	8	1	2
1	8	2	6	8	2	9	9	7
8	1	6	8	7	9	2	8	9
9	9	7	2	1	9	8	6	
8	2	9	9	8	6	2	7	1

1	2	2	8	9	8	7	9	6
8	9	9	6	7	1	2	2	8
6	7	8	2	9	2	9	1	8
2	8	1	9	2	7	8	6	9
9	8	9	1	8	6	2	2	7
7	2	6	9	8	2	1	8	9
8	1	8	2	6	9	9	7	2
9	6	2	7	1	9	8	8	2
2	9	7	8	2	8	6	9	1